



안민 총장의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. 수요찬양대를 20여년 지휘해오고 있는데 대원들과 서로 동역자로 인식하고 부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. 음악적으로 덜 어려운 성가가 더 많이 공급되기 원합니다. (여수은파교회 배효현)

휴가 기간이다. 재밌고 유익하게 잘 보내고 있다. 안민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다. 어제, 다양한 색깔의 연주를 본 후 이런 찬양을 우리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. 정말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고 있어 기분이 좋다.
접하지 못하던 음악을 배우는 수업이 재미있었다. 고음 많지 않고 중저음 많은 곡들을 배우고 싶었다. 분반수업 중 고전음악을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었다. 교회에서 접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현대성가와 다른 힐링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찬양을 찾고 싶었다. 세미나에서 배우는 음악이 다양하니 한군데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음악을 찾게 된 것 같다. 2성 3성 등 성부 숫자가 가진 상징성 등은 참 재미있는 설명이었다. 이런 곡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송 등으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. (은혜로교회 한수진)

더운 날씨에도 해가
거듭할수록 더욱
풍성해 지는
획기적세미나!
내년에도 더욱
기대됩니다.
(울신시립합창단 조은혜)

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. (부산 동삼교회 박민영)

